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A]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들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알 대일 ㉡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 경청한다

[B]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기록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길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길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
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디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있었으니
서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추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청년기 시인의 낭만적 열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A]와 [B]가 작품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A]는 화자가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B]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을 보여 준다.
- ② [A]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B]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③ [A]는 화자의 소중한 과거를 함축하고, [B]는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
- ④ [A]는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고, [B]는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 ⑤ [A]는 화자의 감상성을 드러내고, [B]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를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d_2
\vdots	\vdots
\vdots	\vdots
t_N	$d_1+d_2+\dots+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 에서 t_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3.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4.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3차

공통 영역 by 평가원 정답

2005.예비 박용철, 「떠나가는 배」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 / 박인로, 「선상탄」 (15, 16)

1. ④ 2. ②

2008.09 인문(36, 37) 3. ④ 4. ⑤